

「마르틴 루텔」의 生誕 四百五十年, 現代 宗敎에 있어서의 「루텔」의 課題(四)

…十字架(十)와 鈎十字(ㄱ)

申南澈

神中心思想의 發動은 中世的 權威思想의 再現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單純한 再現이 아니다. 危機思想에 있어 서의 黨派的 一形態이다. 強權의 宗敎的 基礎를 주는 思想이고, 國家權力の 더 큰 效果있는 行使를 支持하는 暴風的 神學思想이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敎會의 人間中心思想에 對한 카도릭敎會의 積極的 進出을 意味한다.

이 神學이 한번 世上에 宣傳되자 많은 學者들은 여러 가지 點에서 論究의 表題로 삼았다. 더욱 新敎派의 神學者로부터는 猛烈한 非難攻擊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카도릭敎會안에서도 이 새로운 主張에 對하여

多大한 注目을 끌게 되었다. 히틀러의 精神的 民族主義가 何等의 學問的 土臺도없이 『獨逸民族의 繁榮』이라는 軍號밑에서 浮動하는 中間層을 進軍시키고있을 때 이 神學은 그것에 발 맞추어 大體에 있어서 나치스와의 共鳴點을 發見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共鳴點이란 무엇인가 (一) 다가치 集團의 神秘主義를 바꿀고 있다는點 (二) 基督의 敎會와 히틀러의 國家는 다가치 民族的 基礎를 가져야 하겠다는點—即 基督教도 獨逸的이어야만 한다는點 (三) 다가치 絶對的 權威를 設定하는點 等에서 大體로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나치스가 標榜하는 獨逸國家의 民族的 強化는 히틀러를 總師로하는 絶對 權力에 依해야만 可能하다. 이 『獨逸民族을 爲하여』 行使되는 權力앞에는 그것에 對한 如何한 批判도 自由일수없는 것이다. 設令神의 이름 밑에서 行하여지는 敎會일지라도 이에 反抗하는 態度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神의 나라도 權力の 앞에 屈服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나치스의 鈎十字(하켄크로이츠)가 暴風的으로 全獨逸을 占領한(今年二月)以來 十字架는 그 至上權을

그것에

讓渡하는 光景을 일으키었다. 全獨逸의 新敎敎會를 統一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 하여 나치스의 基督教徒만이 大道를 闊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點에 있어 서는 卽 敎會統一에 있어 서는 辨證法的 神學은 反對를 表明한다. 基督自身の 側으로부터가 아니고, 外部的으로 人間에 依하여 改遭되든지 統一되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敎會는 神의 敎會이다. 『神의 啓示와 和解』에 依하여 된다면 모르거니와 人爲的으로 人間에 依하여 하여져 서는 아니 된다. 聖靈과 洗禮에 依하여 敎會의 行使는 定하여 지는 것이다. 人間은 神의 對象으로서만 存在할수가있고, 神을 對象으로 取扱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발트의 思想으로부터 본다면 無理가아닌 反對이다. 事實로 이 때문에 辨證法的 神學이 나치스에 依하여 어떤 때는 排擊을 받기도 한다고 한다. 나치스는

強權的 支配속에 神의 말씀하시는 곳인 敎會도 집어 넣으라고 하고 事實로 집어넣고 있는 것이나, 발트는 神學者이니 만치 強權에 對한 神의 말씀의 優位를 主張한다.

그러나 이것도 最後的인것이 아니다. 그는 究極에 있어 서는 나치스와 妥協하는 것이 었다. 敎會의 任務는『神의 말씀』에 忠實하는데에 있다. 十字架가 있는 곳에는 神의 榮華와 安慰가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任務는 神에 奉仕하는 同時에 國家에 獻身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神의 말씀』을 國民에 있어서 忠實히 履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神의 말씀에 忠實하지않은 것은 國民으로서 忠實하지 않은 것을 表明하는 것이 되고 만다.

神에 對한 罪는 卽 國家에 對한 罪이다. 十字架와 鉤十字는 同時에 恩惠의 源泉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이다! 神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國家에 對한 奉仕이고 國家에 對한 忠實은 卽 神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의 表現이다. 十字架는 鉤十字와 密接하게 붙어 있다.

人間中心思想으로부터 神中心 思想으로의 이 같은 轉向은 조금도 에누리 없이 危機思想의 反動的 形態인 것이다. 事實로 발트는 自身の 辨證法的 神學을 危機神學이라고도 한다. 獨逸現下의 國情이 보이고 있는 모든 事實에서 우리는 宗教와 國家와의 關係를 明白히 觀取할 수가 있는 것이다. (끝)